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39회)

제10편 소사신앙촌 시대 제1부

- 제 10편
- 소사신앙촌 시대 제1부
- 一. 신앙촌(信仰村)이란?
- 二. 첫째신앙촌 · 소사신앙촌 · 첫째울다리
- 1) 소사신앙촌
- 2) 소사신앙촌이 건설된 장소
- 3) 소사신앙촌 생활
- 4) 영모님이 세운 하늘의 법 앞에 쓰러져가는 신앙촌사람들
- 5) 노구산 집회 기우제
- 6) 소사신앙촌의 호사다마(好事多魔); 영모님의 구속과 4.19혁명
- 7) 영모님의 구속 동기
- 8) 영모님의 재판
- 9) 불법적으로 영모님을 처단 시도
- 10) 마귀당 총회(總會)를 결성하다; 모세를 모반한 고라당
- 11) 꿈같은 영모님의 석방
- 12) 교단체계를 정비하시는 영모님
- 13) 동아일보 사건
- 14) 영모님 2차로 또 구속되시다
- 15) 영모님과 5.16 군사혁명

15) 영모님과 5.16 군사혁명

최인규 내부장관의 사형이 집행되고 얼마 안 되어 영모님의 결심 연도 공판 날짜가 정해졌다. 때로는 소문이 유언 비어로 끝나면 좋으련만 혹여 종교적인 사건으로 교권주의자들의 개입에 의해서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까 하여 걱정이 많았다.

영모님의 선고공판일자는 1961년 5월 16일이었다. 다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마음이 불안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유당정권에 이어 또 장면 민주당 정권에서 구속 수형생활을 연거푸 하시므로 그때의 전도관 교인들의 마음은 위축되어 있었다.

전국의 전도관 교인들은 영모님의 결심공판을 꼭 참관하려는 마음으로 들떠 있었다. 그러나 많은 전도관 교인들이 볼러들기 때문에 방청권을 얻기란 하늘의 별따기였다. 누구보다도 먼저 가서 줄을 서야 순서대로 발행해주는 방청권을 받아야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교인들은 다들 통급단 해체되면 정동재판

장으로 출발을 하려고 마음을 잡고 있었다.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영모님의 공판일인 5월 16일이 되었다. 소사 신앙촌 사람들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정동 법정 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신앙촌 내의 광고 안내 확성기에서 계속 무엇인가 떠들고 있는 것이다. "혁명공약 어찌구"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경비원들에게 물어보니 오늘 새벽에 군인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장면정권을 무너뜨렸다고 한다. 신앙촌 사람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렇다면 영모님의 재판은 어찌될 것인가?"였다. 그랬더니 옆에서 좀 상식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그야 영모님 재판은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라고 하면서 "하늘이 심상치 않은 영모님 재판을 못하게 뒤집어엮은 거야"라고 한다. 다들 듣고보니 그말이 맞는 것 같다.

그때야 영모님께서 장면정권에 의해 구속되기 전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다. "이 돌이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이 돌이 그위에 떨어지는 자는 가루가 되어 흩어지리라(마21:44)" 영모님은 전국을 순회하시면서 이 말씀을 빼놓지 않고 강조하셨다. 하늘의 역사를 막는 자는 개인이 됐건 집단이 됐건 용서없게 된다고 하신 것이다. 영모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경고하셨는데도 장면정권은 영모님의 역사를 인간의 역사로 잘못 알고 대항한 것이다. 결국 하늘사람과 부딪친 결과 부서지고 박살나버린 것이다.

박정희 정권 영모님 석방

영모님의 구속과 5월 16일 박정희 장군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6000년 만에 구세주를 출현시키시기 위한 선봉장으로 출현된 영모님의 역사가 절대로 실패로 돌아갈 수가 없

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여기서 발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5월 16일을 기점으로 해서 인류구원의 역사를 이룩할 한국민족을 전세계에 드러내는 계기를 마련하셨다. 대한민국의 국운을 활짝 열어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이다. 영적인 왕 영모님과 육적인 왕 박정희 장군과의 조화를 이루어 대한민국의 국운을 열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징후는 영모님의 출현과 동시에 여러군데서 감지되었다. 성경에 예언된 동방나라가 우리 한국이다. 그 한국에서 동방의 의인이 나타나서 전세계 왕들을 다스린다. 감람나무가 한국에서 나타난다 등등 여러 가지로 한국의 미래가 엄청나게 밝을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서론들이었다. 그러나 영모님께서 2차로 옥중에 구속되고 5월 16일 박정희 장군에 의해서 혁명이 성공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이며 구세주를 출현시킬 민족으로서의 위상을 전세계에 드러내기 시작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단군민족을 "바산에서 뛰어난 자사새끼로다(신명기 33:22)"라고 예언하였다. 바산에 숨어있는 사자를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산 속에서 뛰어나오니 세상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는 예언이다. 영모님이 당신의 사명을 다 성공리에 완수하시면 구세주가 한국에서 출현하시어 전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단한 생각자인 격암 남사고선생의 예언말씀을 소개하겠다.

開關以來初逢運 三八木運始皇出
 개벽이래초봉운 삼팔목운시황출
 世人不知寒心事...弄弓歌
 세인부지한심사 농궁가

"우리나라가 개벽 이래 처음으로 맞는

좋은 운인데 삼팔목운되시는 박태선님이 첫번째 영적 황제로 출현하셨기 때문인데 이것을 세상사람들이 알지 못하니 한심한 일이다"

단군 이래 우리나라는 굶주림의 역사였다. 보고고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먹고 살기가 힘들 정도였다. 굶어 죽는 사람도 많은 나라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개벽이 된 이래 처음으로 맞는 최고의 운이 열린다고 하였다. 그것은 삼팔목운되시는 박태선님이 출현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민주당 장면정권에 의해서 구속되었던 박태선님은 박정희 정권에 의해 석방되었다. 이후 두 분은 영육 간의 군주로 천운의 합을 이루어 온 인류를 구원시키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운을 활짝 열어나가게 되는 것이다.

박태선 장로님과 박정희 장군은 동갑인 정사생이다. 그리고 박정희 장군은 공화당을 창당하여 그 상징을 황소로 하여 소 울음소리의 주인공인 박태선 영모님의 엄마로서의 상징을 내세웠다. 이 두 분은 영과 육의 조화를 이루시어 대한민국의 경제부흥을 일으키시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을 벌이는 것이다. 그래서 남사고 선생은 개벽 이래 초봉운(開關以來初逢運)이라고 하였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개벽된 이래 처음으로 맞는 최고의 운이 열린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정도령이 오시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첫번째 출현한 박태선 정도령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는 길을 활짝 열어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완성자 정도령님이 출현하시게 되면 인류의 구세주이시므로 전세계를 호령하는 나라가 되면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장군의 집권부터 우리나라의 국운이 활짝 열리는 이유를 전국민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三軍烽火城遇賊 善法이면好運時
 삼군봉화성우적 선법 호운시
 不法이면惡運時末世出入攝政君들
 불법이면악운시 말세출입섭정군
 堂堂正正일치마소.....
 당당정정 격압유록 말초가에서

"삼군이 합세하여 봉화를 일으켜 성에서 적을 만나는 대로 몰아낸다. 군사정권이 선한 법으로 다스리면 좋은 운이 오는 시대가 되고 불법으로 다스리면 악운이 오는 시대가 된다. 말세에 나가고 들어오는 섭정군들 즉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위탁받은 임금들은 정정당 당함을 잃지말아라."

위 예언은 5.16군사혁명이 있을 것을 적어놓은 것이다. 군사정권은 섭정군 즉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영적 왕에 의해서 위임받아서 통치하는 통치자를 말한다. 그러나 박정희 장군은 왕중왕인 하나님에 의해서 위임받아 통치를 하는 섭정군인 것이다. 하늘의 뜻을 이루려 특별히 하늘의 택함을 받아 그 시점에 임금으로 위탁된 섭정군인 것이다.

사실 이 시점에 하늘의 사명자 박태선 영모님과 권한을 위탁받은 박정희 섭정군과는 참으로 잘 조화를 이루어 구세주 출현할 대한민국을 세계가 놀라는 경제기적을 이루어 놓은 것이다.

박정희 위한 기도 돌연 중단하다

그러나 교만하여져서 하늘의 뜻을 어기게 되면 하늘은 용서하지 않으신다. 1978년에 영모님은 갑자기 사석에서 "박정희가 하늘의 뜻을 어기고 있다. 그래서 박정희를 위해서 하던 기도를 끊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 말씀을 군사정권에서 들으면 큰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겁이 났다. 이 말씀을 여러 번 사석에서 하셨다. 하늘의 일을 땅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는가!

1979년 10월 26일에 박정희 대통령은

시해당하였다. 격압유록의 말을 적어 보겠다.

阿差한번失法하면 自身滅亡敗家로
 아차 실법 자신멸망패가
 全世大亂飛相火로
 전세대란비상화
 天下人民滅亡일세.....말초가
 천하인민멸망

"아차 한번 법을 어기면 자신이 패가 되고 멸망될 뿐만 아니라 전세계 서로 간에 대란이 일어나 화를 당할 것이고 온 천하 백성이 다 멸망을 당할 것일세"

섭정군이 아차 한 번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게 되면 자신이 패가망신 하는 것뿐 아니라 전세계에 대란이 일어나서 천하인민이 다 멸망한다는 예언이다. 섭정군의 법을 어긴다는 말은 하늘의 뜻을 어기는 것을 말한다. 하늘이 뜻이 있어서 세운 섭정군이 하늘의 뜻을 어긴다면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하늘의 뜻을 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하늘의 사명은 분명 섭정군에 대해서 언짢은 말씀을 하셨다. 그 말씀의 결과는 섭정군의 시해사건으로 연결되어진 것이다.

정말 소사신앙촌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신앙촌 건설은 하늘의 섭리 속에서 되는 것이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으로 영모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고 환희에 넘쳐 있던 교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당황하게도 하였다. 소사신앙촌시대에 된 일 중에 할 말이 아직도 많이 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풍아의 외치는 소리의 주인공인 영모님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되어지는지를 따라가 보기로 하겠다.*

제10편 끝 / 다음에는 11편 연재

격압유록 新 해설
 제 6회

금운을 좇아나오신 정도령을 만나면 살아날 묘수가 있으리라

好事多魔此是日 호사다마차시일
 雙犬言爭呶十口 쌍견언쟁초십구
 暫時暫時不免厄 잠시잠시불면역
 九之加一線無形 구지가일선무형
 十勝兩白是口人 십승양백시구인
 不顧左右前進 불고좌우전진
 死中生元真理 사중구생원진리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이날을 두고 하는 말이라. 진인이 육고를 치르니 잠시 잠깐 역운을 면치 못하리라. 쌍견언쟁 초십구(雙犬言爭初十口)

言爭呶十口)은 육(獄)의 파자. 왜 진인이 육고를 치르는가? 누구를 믿고 죽으면 천당 간다는 비진리를 주장하는 가짜 구세주의 무리들이 '살아 천당'이라는 영생의 비결을 가르쳐주시고 죽는 세상을 안 죽는 세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진인을 음해하고 팽박하여 진인이 죄도 없이 육고를 치르게 되는 것을 말한다.

십승(十勝)은 형상이 없느니라. 구지가일선(九之加一線)은 9+1이니 십(十)을 의미한다. 십승양백(十勝兩白)을 아는 사람은 좌우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 죽을 가운데서 영생을 얻는 으뜸이 되는 진리는 십승 양백에서 나오느니라.

出生入生信天村 출사입생신천촌
 造次不離架上臺 조차불리가상대
 坦坦大路永不變 탄탄대로영불변
 有形無形兩大中 유형무형양대중
 道通天地無形外 도통천지무형외
 肇乙失口眞覺人 조을시구진각인
 祈天禱神時不休 기천도신시불휴
 惡罪滿天判端日 악죄만천판단일

나기면 죽고 들어오면 영생을 얻는 곳이 신천촌이다. 차례로 분리되지 않게 지어진 가상대(架上臺) 즉 3층으로 된 승리대(勝利臺)는 탄탄대로가 되어 영원토록 변치 않으리라. 승리라 함은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방을 이기는 것을 말한다. 그래야 영생, 구원을 얻는 것이다.

유형(몸)과 무형(마음)에서 중을 잡아라.允執厥中(允執厥중)의 중) 중은 중도이며 하늘의 진리를 중정(中正)으로 표현한다. 堯

(오) 임금이 舜(순) 임금에게 禪讓(선양)하며 "하늘의 운수가 그대에게 있으니 진실로 그 중(中: 지나침도 없고 모자라지도 않는 핵심)을 잡아라. 천하가 困窮(곤궁)해지면 하늘이 임금에게 내리시는 녹이 영원히 끊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몸에서도 치우침과 부족함이 없고 마음에서도 치우침과 부족함이 없는 중의 상태를 말하며 무아의 상태라 가능하다. 상고(上古)시대로부터 유가의 도통은 중(中)을 목표로 하였고 도통의 승계는 중(中)의 심법을 전함으로 이어져 왔었다. 도는 천지로 통하며 무형의 밖까지 통하느니라. 도통은 마음으로 가는 길이다. 조을시구 참조로 깨달은 사랍어!

한순간도 쉬지 말고 초초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조을시구(肇乙失口)에서 '을(乙)은 새를 말하니 금구조(金鳩鳥) 봉황새 불사조가 되며 시구(矢口)는 알지(知)자의 파자이다. 죄악이 하늘에 가득차서 하나님이 생사(生死)

를 심판하는 날이 오리라.

咸陽三月家安在 환양삼월가안재
 靑槐滿庭之月 청괴만정지월
 白楊無芽之日 백양무아지일지
 鳳穴隱日 서녀은일
 三床後臥 삼상후와
 十勝十論 십승십처론
 未卜定穴不可生 미복정혈불가생
 地理天萬十勝 지리천리십승
 弓刃地萬無一失 궁궁지만무일실
 入者生 입자생
 有智無智分別時 유지무지분별시
 禍因惡積不免歎 화인악적불면옥
 人獸分別兩端日 인수분별양단일
 飛火落地混沌世 비화락지혼돈세
 西方庚辛四九金 서방경신사구금
 從金妙數大運也 종금묘수대운야

세상이 어지럽고 많은 사람이 죽을 때에는 집에 있는 것이 안전하리라. 푸른 괴나무가 뜰에 가득한 달이 백양나무에 씩이 없는 날이로다. 청(靑)은 파자로 십이월(十二月)을 말하며 무아지일(無芽之日)은 아(芽)에서 아(牙)가 없



승리신문		1990. 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충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재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에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8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